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날 / 부활과 구원

하용조 목사 / 로마서 5 : 6 ~ 11

성령의 불로 전도하는 자들

여러분이 만약 교회를 개척한다면 어디서 하고 싶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한다면 여러분의 고향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장소가 있는지요? 그런 장소가 있길 바랍니다. 기회가 허락한다면 주님의 교회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혹은 다른 나라에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며칠 전 우리 교회에서 'ACTS29' 리더십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설교를 마치고 독일에서 만났던 유기상 목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홍정표 성가사님이 독일에서 공부하며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무척 오랜만이라 어떻게 오셨냐고 여쭙봤습니다. 유기상 목사님은 독일에서 10년간 목회를 하시다 선교사 생활을 접고 서울에 들어와 5, 6백 명 모이는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선교에 대한 애정과 꿈으로 중국을 다니며 선교회를 만들어 요녕성에 가서 전도를 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며 지도자를 가르쳤습니다. 중국에 가서 안수, 설교,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놀랍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변화는 전도하는 사람이 놀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보면 전에 전도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 교회 30개를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훈련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저 성령의 불을 받아 자기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모은 것입니다. 병아리가 암탉을 바라보듯이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얻고 돌아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백 개, 이백 개, 천 개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한달 생활비는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입니다. 중국에는 목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1백만 원 정도를 주면 1년을 동안 전도사처럼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빛을 내서 자기들끼리 조그맣게 교회 처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5,6백만 원이면 교회 처소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교회가 몇 백개, 몇 천 개가 되니 목사님께서 도움을 주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유 목사님 부부가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다 저를 기억하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교회 세울 때 구원의 역사가

목사님 부부가 절 찾아오신 날이 리더십 헌신예배 날이었고 비전교회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어쩌면 그렇게 자기들 생각과 목사님 하신 얘기가 같은지 놀랐다고 합니다. 저는 유목사님의 말을 듣고 김창욱 전도사님께 중국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요녕성에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계신 그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나가서 개척하는 것을 마치 공식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수믿고 은혜 받으면 준비가 되든 되지 않은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 동네와 여러 지역으로 가서 개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 비전이 생기는구나. 집이 없어도, 땅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복음 없이 사는 내 이웃이 불쌍해 가서 헌신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성전, 목사님, 훈련된 사람이 갖춰진 조직적으로 완전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조직적으로 불완전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세

계에 이런 교회가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이라크에 시아파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일어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기로 이라크에 종교의 자유와 예배를 드릴 기회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주님, 이라크 전쟁이 기독교와 회교와의 갈등으로 결론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미국과 영국이 당분간 이라크를 통치할 터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전혀 생길 수 없는 지역에 교회가 생기도록 해 주시고 이라크 사람도 예수 믿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원래 아프간은 기독교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아프간을 방문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 당시 사람들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프간에 전쟁이 일어났기에 NGO가 들어갔고 우리교회도 NGO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교회 장로님과 교인들이 들어가 방 7개짜리 공간을 얻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나라는 위기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복음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위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계기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이후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절망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셨고, 상처받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옛날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주님은 꿈을 주기 시작합니다. “나는 떠나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보낸 것처럼 널 세상에 보내고 싶다”고 말하십니다.

사람이 목적, 사명을 갖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태롭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적과 큰 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생명의 법,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 이전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강, 믿음, 생명,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부활과 믿음에 대한 주제로 세 가지 믿음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적인 신념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은 신념이 아닌 약속의 믿음입니다. 약속의 믿음은 십자가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까지 가는 약속의 믿음을 지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사명과 능력을 주심

예수님의 삶은 구원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1차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마지막 완성입니다. 왜 부활이 구원의 완성일까요? 선량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파멸시킨 어떤 독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는 독재자와 대결해 독재자를 죽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으로 그도 죽고 맙니다. 독재자가 죽었으니 악은 제거됐지만 싸운 영웅도 죽었으니 피장파장입니다. 그런데 이 영웅이 삼 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봅시다. 이것은 악을 제거한 승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을 죽이실 때 죽인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사탄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

니다. 악도 제거했지만 악을 이기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승리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 승리는 반쪽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과 구원과 관계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만 제거했다면 우리 즐거움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제거해주신 그 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즐거움이 완전하고 영원하게 된 것입니다.

5장 17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저지른 모든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었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어떤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형을 받아서 그 죄인이 자유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을 갠 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처형을 대신해 치러주셔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정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끝난다면 구원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영원한 것이 되기 위해 주님은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버리지 못하는 이유

누구나 십자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이해합니다. 그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 같이 자기의 죄나 잘못, 사고 때문이 아니었고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신다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 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면, 내 죄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죽을 내 몸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의식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지만 나와 깊이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육의 본능, 옛 사람이 다시 나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찾지만 또 마찬가지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확실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반쪽인 이유는, 자신과 같등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 성품, 인간적인 것들을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못 박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날 때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는 모두 혈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으면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은 부활을 본받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로운 성품으로, 내 내면이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부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사건 뿐 아니라 나 자신도 죽는 영적 경험을 하 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본성이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내 성품과 생각이 완전히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하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 못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몸은 십자가에 못박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자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십자가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산 자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 벽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중간에서 내 자신을 처리하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통 피투성이일 뿐입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본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본성은 옛 사람의 성품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주일 40일간의 축제에서 나를 장사시키는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의식은 ‘세례’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003년 부활주일을 맞이한 성도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2004년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죽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진정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 본성, 내 인생이 부활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구원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승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한적 구원이 아니라 무한한 구원이요, 순간적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선언으로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읽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감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고백이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신앙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어떤 세상의 곤고와 핍박이 나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죽음인들 내 고백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건강하고 병든 것, 모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이 고백과 같은 경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고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구원입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